‘쉴 권리’가 필요한 마트 노동자

영화 <카트> 속 마트 노동자의 노동환경

글 편집실

마트 노동자 선희(염정아)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객님’을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정작 그는 ‘진상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수당 없이 연장근무를 하며 ‘행복’을 잃어간다. 어느 날,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대량 해고를 통보한다. 위기에 놓인 선희와 그의 동료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한다. <카트>는 2007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을 제한하는 비정규직법안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이랜드 홈에버 파업 사태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다. 당시 해당 사업장은 일부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700여 명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되레 비정규직을 양산한 셈이었다. 영화는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노조의 긴 투쟁을 보여줌으로써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되짚는다.

최근 셀프계산대를 늘린 것 또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고령층,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는 셀프계산대 이용이 어려우며,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유인계산대를 이용해야 한다. 유인계산대에 소비자가 몰릴 수밖에 없으며,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계산 노동자들은 각종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게 되었다. 소비자가 셀프계산대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종량제 봉투 구매 및 술 구매 시 나이 확인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수시로 호출된다.

있어도 앉지 못하는 의자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시행한 ‘대형마트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약 70%가량이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로 손목, 어깨, 허리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했으며, 장시간 서서 일하는 데다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그

마트 노동자의 성별 고용 형태 분포

(단위: 명, %)

		성별		전체
		여성	남성	
고용 형태	정규직	312 (52.3)	44 (88.0)	356 (55.1)
	무기 계약직	283 (47.5)	4 (8.0)	287 (44.4)
	기간제	1 (0.2)	2 (4.0)	3 (0.5)
전체		596(100.0)	50 (100.0)	646 (100.0)

자료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 노동자 임금 실태와 정책 방향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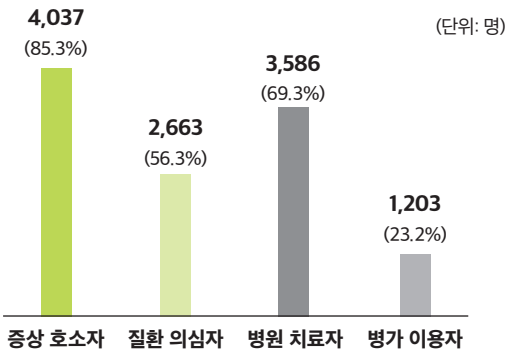
원인으로 꼽혔다. 이 가운데 77%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못하고 개인 비용으로 치료받는다고 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마트 노동자들이 서서 일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6.5시간. 매장 내 의자 보급률은 19.9%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바빠서 의자에 앉을 시간도 없다 보니 하지정맥류 증상을 경험한 노동자도 78.6%에 달했다.

지난해 6월에는 코스트코의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한 명이 30℃가 넘는 날씨에 카트를 옮기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폭염 속 지속적인 온열 노출과 과중한 업무량이 근력 소모와 탈수를 일으켰고, 결국 폐색전증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적절한 인력배치 및 휴게시설 이용이 보장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이 사건이 열 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음에도 해당 사업장은 아직도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실정이다.

사라져 가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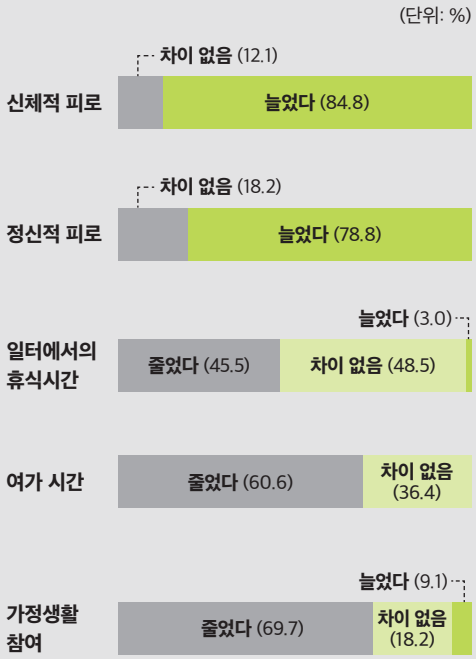
최근 대형마트 격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규제 철폐 움직임이 일고 있다. 휴무일을 마트 자율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마트 노동자들은 공휴일 의무휴업이 사라지면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호소하는 마트 노동자 실태



자료 :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 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2019)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과 삶 실태조사



자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주 대형마트 노동자 대상 (202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발표한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요일에서 평일로 의무휴업이 변경된 청주의 경우, 전환 이후 '신체적 피로가 늘었다'는 응답이 84.8%, '정신적 피로가 늘었다'는 응답이 78.8%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평일에는 쉬어도 업무 문자가 온다거나, 고객이 몰리는 '목·금·토·일'을 연속으로 일하면서 쉬는 날엔 집에 앓아눕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마트 노동자들은 10년 전, 영화 <카트>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마트 노동자에게는 맞서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결과인 셈이다.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정비하고 마트 노동자에 대한 연대와 공감이 필요하다.